

다산포럼



권순국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 '강서대전'이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민주당 후보와 무려 17%의 격차를 보였다. 그러자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하던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변화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공무원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후보를 사면, 복권시켜주고 다시 구청장 보궐선거에 공천했으니 대통령이 무언가 '결자해지' (이준석 전 당 대표의 발언) 해야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역 구도가 비교적 희박한 수도권의 50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민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예비선거인 셈이니, 여야의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전면전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민심이 현 정권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어떻게 민심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선 대통령은 8월 29일 여당 국회의원 연설회 모두(冒頭) 발언에서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절학이 바로 이념이다"라는 요지의 말을 던졌다. 그 '이념'은 이른바 '자유

이념 보다 민생

민주주의'의 정치 이념일 것인데, 지금이 냉전시대도 아닌데 왜 철지난 이념 타령일까. 아마도 현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갈라치기 하더니 급기야는 불순한 공산주의와 연결시키기 위해 이런 화두를 던진 게 아닌가 싶다. 그러자 뒤를 이어 육사 교정에 세운 독립운동가 흉배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보존부장관의 발언이 이어졌다. 주적인 북한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때 공산주의를 신봉한 흥분도 장군의 동상을 장교를 양성하는 육사에 둘 수 없다는 이유다.

잘 알다시피 흥분도 장군은 일찍이 의병전쟁에 참여했고, 의병부대가 궤멸되자 대부분 독립운동 세력이 그렇듯 북간도로 건너가 1919년 5월 대한독립군을 창설하였다. 독립군 사령관으로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21년에는 연해주로 건너가 거기서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소비에트연방 내에 거주했으니 독립군 활동을 위해 공산당에 가입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무슨 문제가 되는가. 당시 소련은 미국과 더불어 연합국의 일원으로 나치 독일과 일제를 물리치지 않았던가. 해방 이후에 공산당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해방 전에 사망했으니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이념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흥분도 장군은 1962년 박정희 정권에서 건국훈장을 받았고, 2016년에는 박근혜 정권에서 일곱 번째 잠수함의 이름으로 명명했으며, 2021년 문재인 정권에 의해 카자흐스탄에서 유해가 송환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지금은 정치이념으로 대립하던 시절이 지나도 환상지났다. 1991년 공산주의 중주국이었던 소련의 붕괴

로 이념의 시대가 저물고 민족과 종교를 중심으로 이른바 문명의 충돌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슬람 문명권과 기독교 문명권의 충돌은 2001년 9.11 테러를 통해 극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한창 전쟁을 벌이는 것도 두 문명의 충돌로 이념과는 무관하다.

더욱이 대통령은 이념을 강조하는 발언에서 "우리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고 단언했다. 이념을 실용에 앞세우겠다는 것인데, 실용은 확대하자면 민생에 해당될 것이다.

연암 박지원(1737-1805)의 '허생전'을 보면, 허생이 변산반도의 군도(群盜)들을 데리고 무인도에 들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본과 무역을 해서 백만 냥을 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적엔 먼저 부유하게 만든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턱이 없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나. 다만 아이들을 낚거들랑 오른손에 손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케 하여라"고 당부하고는 나갈 수 있는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섬을 떠났다.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제정하는 등의 턱을 바로 세우는 정덕(正德)보다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이 먼저라는 것이다. 오늘날로 바꾸면 이념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다.

18세기에도 당연한 이치가 21세기 한국 정치에는 왜 통하지 않았을까. 물가는 오르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며 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이는 이 팍팍한 현실이 민심을 돌리게 하지 않았겠는가!

NGO 칼럼



이재웅
광주YMCA 관장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며,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복음 14장 6절)고 선언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진리를 찾아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말은바 소명을 다해 살아가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대답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종교의 영역을 떠나서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내가 지금 잘살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며 사는 것일까라는 화두를 부여잡고 살아간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구인으로 더 나아가 우주인으로 태어나 세상에 내 던져져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화합하며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문학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 중에 '인간이란 관계의 총합'이라는 답이 가장 마음에 끌리는

시민이 광주를 자유케 하리라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유엔과 필연이라는 그 어느 지점에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국가와 지역 중 그 어디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지금은 광주라는 지역에서 150만 공동체의 일원으로 광주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살아가는 이주민까지도 포함하여 광주시민이라 이름한다. 태어난 곳과 태어난 해, 태어난 시간이 다르지만 광주라는 지역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정의, 평화, 인권의 도시로서 광주를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으로서의 광주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생명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교육, 돌봄, 돌봄, 돌봄 등의 환경을 말한다. 생명 공동체로서 광주라는 울타리는 튼튼하고 건강할 것일까 아니면 외출 타기를 하며, 언제 추락할지 알 수 없는 불안과 위기 속에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생명 공동체로서 광주를 탄실하게 가꾸어갈 수 있도록 바탕이 되는 광주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존재한다. 올해로 창립 103주년이 지나고 있는 광주YMCA는 광주 정신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나환자와 결핵환자의 아버지 오방 최홍중 목사를 비롯한 울안 김천배 선생, 은재 백영중 목사, 독립운동가 하산 김철 선생 등 광주 정신을 온 삶으로 증명

하며 살아간 수많은 이들이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으며, 어떤 자리도 탐하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유아, 청소년, 청년,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였고, 조국 해방 후에는 고아와 결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생존과 인권을 위해 온 생을 바치셨다. 그랬기에 광주시민들도 온전히 이분들의 삶에 동참하며, 보리와 쌀, 그리고 과부와 동전 한 잎의 소중함을 알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었다.

지금 광주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광주시민들의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다. 세상이 복잡하게 변하고 기존에 시민단체에서 행했던 많은 일들이 복지와 행정의 영역으로 편입된 점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 시민들의 아픔에서 떨어진 점도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의 광주 시민단체에게 주어진 임무라면 시민들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사랑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다.

광주YMCA는 창립 당시 나환자, 결핵환자, 결인 등과 함께 하였듯,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그들의 걸이 되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선배들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함을 반성한다. 이 틈을 광주시민이 때꾸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랬을 때 성경 시대 예수의 모습으로 광주시민이 광주를 진정 자유케 할 것이다.

국제기록기구의 총회와 5·18

인 감각의 컨퍼런스 룸과 강당 그리고 다양한 색과 테마를 가진 여러 개의 개인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가히 세계 최고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최고 수준의 공간이었다.

국제기록기구의(ICA) 5일간의 국제 행사는 300개 이상의 프레젠테이션, 77개의 포스터 발표, 부스 전시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다양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국가 기록 관리 방법, 친환경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 기록 관리 방법, 기록물 콘텐츠에 대한 소개 등을 참가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UAE와 아부다비의 기록물도 부스를 만들어 소개했다.

개막식 때 호세 컵스 ICA 회장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우리의 지식, 문화 및 다양성을 발견하고 공유해야 할 때다. 이것이 우리 총회를 배우고, 공유하고,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당신은 세계의 기여를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집단 지식을 참용성 있게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ICA 총회의 주제는 '지식 사회의 풍요로움'였다. 이 행사엔 기록물과 기록물 관리뿐만 아니라, 도서관 사서 박물관 전문가, 자료 관리자, 언론인,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초대되었다. 기록관장인 필자가 초대받아 5·18기록물을 3년에 걸쳐 통합 DB화하는 과정을 소개했다니 여러 나라가 관심을 가졌다. 특별히 AI(인공지능) OCR(광학문자인식) 기능의 적용물에

대한 질문을 하며 두바이나 아부다비의 기록 관리자가 적용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도록 노력하는 회의였다. 연합국인 아부다비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관용의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하였다. 기억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참용성있게 기록하고 전시하는 일을 아부다비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폐막식은 매우 인상깊었다. 한 주 동안 각자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다. 참가자 모두 어디에서 왔든 간에 아부다비에서 발견한 것을 통해 자신의 일을 풍요롭게 할 수 있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함으로써 기록의 의미를 높였다. 한국의 예도 언급했다. 고무되었다.

아부다비 루브르(Louvre Abu Dhabi)박물관과 세계 최대 규모의 두바이도서관 역시 아카이브가 무엇이고 어떻게 전시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또 그에 맞는 현대식 인프라를 통해 그 유적지와 조화를 이루며 기록물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건축물 디자인까지 멋졌다. 그로 인해 가고 싶은 장소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이번 회의의 참가는 기록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우리 기록관도 또 도청복원 추진단도 시대를 불문하고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기록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社說

지역화폐 취지 살리도록 제도 보완해야

정부가 지역화폐 사용처를 대폭 제한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선 2019년 도입된 '광주 상생카드'를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이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평균적으로 충전 금액 대비 7~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액면가 10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9만 원을 내고 구입하거나 카드를 충전하면 10만 원 어치 상품을 살 수 있다. 지역 소비자는 물론 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광주의 경우 정부 지원 예산 감소에 따라 발행액이 축소됐는데 올해 발행액은 861억 56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시행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대폭 축소됐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해 병원, 주유소, 학원 등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기존 가맹점이 사용자에서 배제됐다. 주부들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네 마트에서 상생카드 사용

이 불가능해 불편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막상 소형 마트에서는 살만한 물건이 없다'는 불만 소리도 나온다. 광주 상생카드의 경우 환불이 어려운 점도 불편사항이다. 전액 환불은 최초 충전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고 잔액 환불은 구입가의 60%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된다는 불평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들이 도입해 상인·소비자간 상생 모델로 호평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화폐 소비 패턴 등을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진 사용자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 열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사용자 제한한 바를 모르지 않으나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배려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화폐가 더 활발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용자 확대하고 잔액 환불조건 등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

야구도시 광주에 축구 열풍 몰고온 광주FC

프로축구팀 광주FC의 돌풍이 광주시민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광주FC는 지난해 K리그2(2부 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올해 K리그1(1부 리그)에 복귀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으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12개 1부 리그 팀 가운데 정규시즌을 3위로 마쳐 파이널A에 오른데 이어 지난 21일 열린 첫 경기에서도 1위 울산현대를 1대 0으로 이기는 이변을 일으켰다. 사실 광주FC의 올해 활약은 이번의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다. 지난 2월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는 광주FC를 주목하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을 정도였다. 초보 감독과 무명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파이널A에 올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ACL) 도전을 목전에 둘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독과 선수가 '찍이지 않는 마음으로' 원팀을 이뤄 불가능을 가능으로 입증했다. 주전과 후보가 따로 없고 공격수와 수비수가 함께 뛰며 이뤄낸 이적효

과를 이뤘다. 올 시즌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유일한 팀도 광주FC 뿐이다.

광주FC가 쓰는 가을동화가 더 감동적인 이유는 열악한 지원과 인프라 속에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광주는 국내 최고 인기 구단인 프로야구 KIA의 홈구장으로 야구도시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프로축구의 인기가 덜한데다 시민구단이란 한계로 선수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뤄낸 눈부신 성과에 광주시민들도 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화답하고 있다. 티켓 구하기 전쟁이 일어날 정도라니 광주FC가 몰고온 축구 열풍을 짐작할 만 하다.

2015~2016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시티는 우승 확률 0.02% 속에서 창단 132년만에 정상에 올랐다. '한국판 레스터시티'를 지향하는 광주FC의 꿈도 실현되지 말란 법이 없다.

無等鼓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막을 내린다. 이번 국정감은 그 어느 때보다 '야당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등 야권이 따지고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 차고 넘쳐났기 때문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 해병대 장병 사망 수사 외 안 들도 과거로 되행하는 정부 부처의 행태는 이번 국정감의 긴장감을 높였다. 민주당 등 야권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맹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을 벌려왔다.

부실 국정감

하지만 현실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민주당 등 야권이 숨겨진 진실을 더 이상 파헤치지 못하고 이미 드러난 문제를 반복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정국을 뒤흔드는 결정적 한 방도, 민심의 고개를 넘어게 하는 정책 대안 제시도, 날카로운 야성(野性)을 갖춘 질의로 주목받는 스타 의원들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실정이 제대로 조명되기 보다 국회 상임위원들로부터의 고성과 막말 등이 난무하면서 이번 국정감도 정쟁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견제를 위한 국회의 핵심 수단인 국정감사가 한파까지 맹랑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의원들의 역량 부족이 주원인이지만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 활동을 내년 총선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국정감에 대한 반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은 지역구로 향하고 있다. 실제로 국정감장에서 자신의 질의만 마치고 지역구 행사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국정감사는 흔히 정기 국회의 꽃이라 불리며 민심의 기대를 모으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국정감이 끝날 즈음이면 어김없이 무용론이 등장한다. 이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웃픈 정치 공식이 됐다. 부실 국정감은 정부의 실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파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실 국정감을 막기 위한 첫 걸음은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의원을 선출하는 깨어있는 시민 정치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시기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이사 tuim@

기고



홍인화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얼마 전, 국제기록기구의(ICA)에 참가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다녀왔다. 1950년 시작된 이후 4년마다 열려 올해 75주년을 맞는 이 회의는 기록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유서깊은 역사를 지녔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은 개관 이후 처음 이 총회의 초청을 받아 5·18아카이브 자료의 디지털화 사례에 대해 알릴 수 있었다. 5·18기록물을 통해 전 세계 시민에게 광주와 5·18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아카이브는 교육과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또 오락과 여가를 제공하고 인권을 보호하기도 한다. 아카이브는 독특하고 동시대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한번 상실되면 대체할 수 없다. 아카이브의 가진 중요한 역할은 인류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기록의 완전한 실현은 사실 확인, 관리 및 광범위한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 "좋은 기록물은 좋은 통치의 중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도출한다.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UAE)의 7개 토호국 중 가장 큰 지역이자 수도이다. 총회 장소 규모는 그야말로 세계적이다. 최대 6000명 관객을 수용하고 현대적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